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9. 14.(수) 11:00 < 9.15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9. 14.(수)
담당 부서	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	책임자	과 장 이병휘 (043-870-5370)
		담당자	연구사 김낙현 (043-870-5377)

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도한다

- 「선박-육상 간 데이터 전송 기술」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-

□ 우리나라가 **스마트선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-육상 간 데이터 전송 핵심기술의 국제표준 주도**에 나섰다.

* 스마트선박 : 디지털 기자재 및 정보통신기술(ICT)을 적용한 미래형 선박으로 안전하고, 편리하며, 친환경,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운항 선박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, 이하 '국표원')은 우리나라가 **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제안한 「선박과 육상간 통신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송·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」이**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인 **신규작업표준안(NP, New Proposal)*으로 채택**됐다고 14일 밝혔다.

* 국제표준 제정절차 : **신규작업표준안(NP)** → 작업반초안(WD) → 위원회안(CD) → 국제표준안(DIS) → 최종국제표준안(FDIS) → 국제표준(IS) 제정

○ 우리나라는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여부*를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, 일본, 독일,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**스마트선박 핵심 국제표준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.**

* **신규작업표준안(NP) 채택 요건** :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2/3 이상의 찬성,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NP로 채택

□ 이 국제표준안은 **스마트선박의 데이터 통신**에 필요한 **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을 규정**하는 표준이다.

○ 선박과 육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**상호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**하고,

○ 항만, 해운사, 조선사 등 **육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통신**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 등을 제공한다.

□ 이 표준을 활용하면 **항만 물류처리 속도에 맞춰 선적과 하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박이 운행속도를 스스로 조절**하고,

○ 항만에 접근하는 선박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항해가 가능해지는 등 **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한 스마트선박 구현에 꼭 필요한 표준이다.**

□ 국표원의 **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**을 통해 **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**(KOMERI)**이 국제표준안 개발**을 주도했으며,

○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**김명진 선임연구원**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 개발 **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**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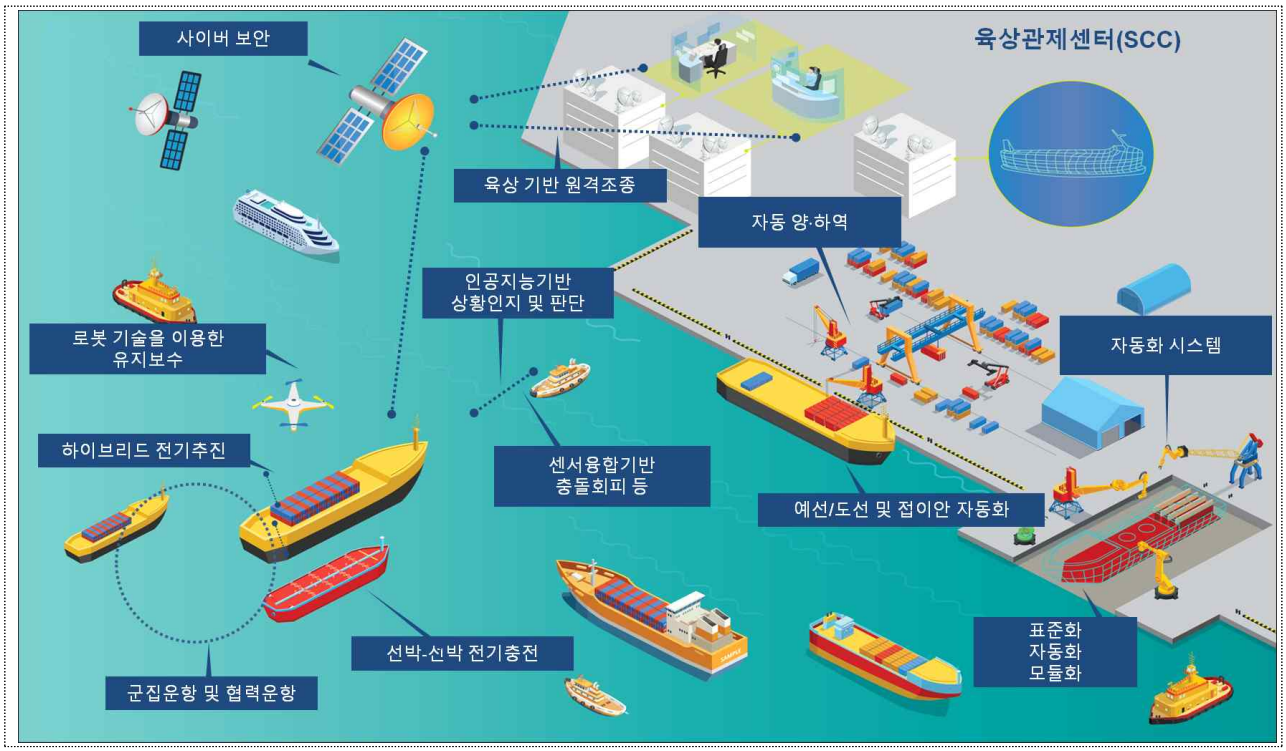
□ **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** “조선해양분야에서의 앞선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**스마트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**하게 되었다”면서,

○ “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**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**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	책임자	과 장 이병휘 (043-870-5370)
		담당자	연구관 이경희 (043-870-5379)
	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	책임자	과 장 이병휘 (043-870-5370)
		담당자	연구사 김낙현 (043-870-537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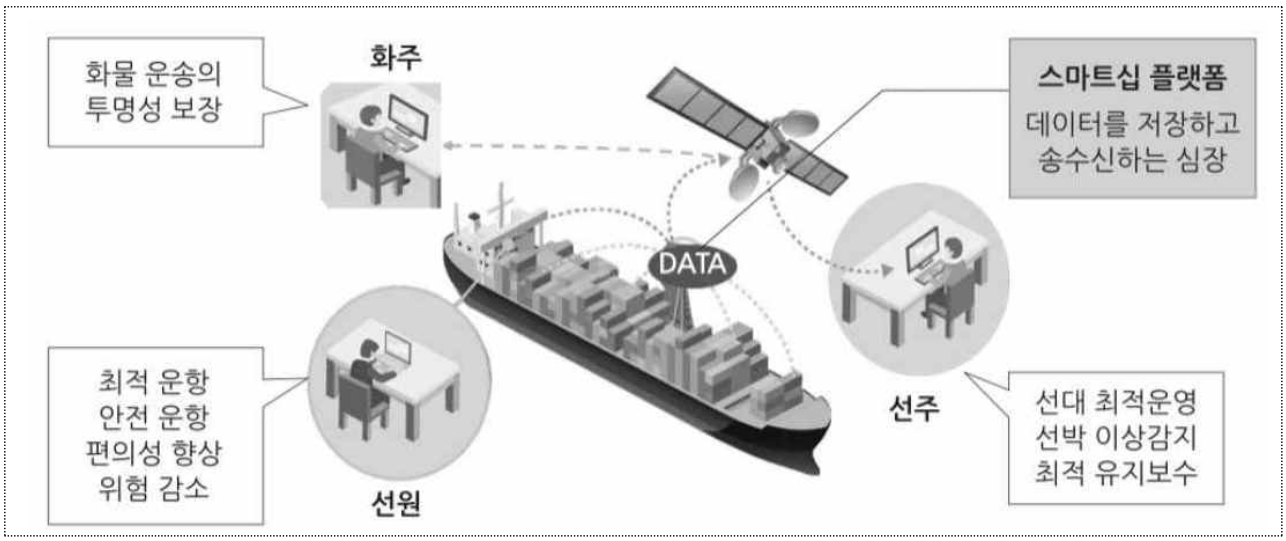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스마트선박 개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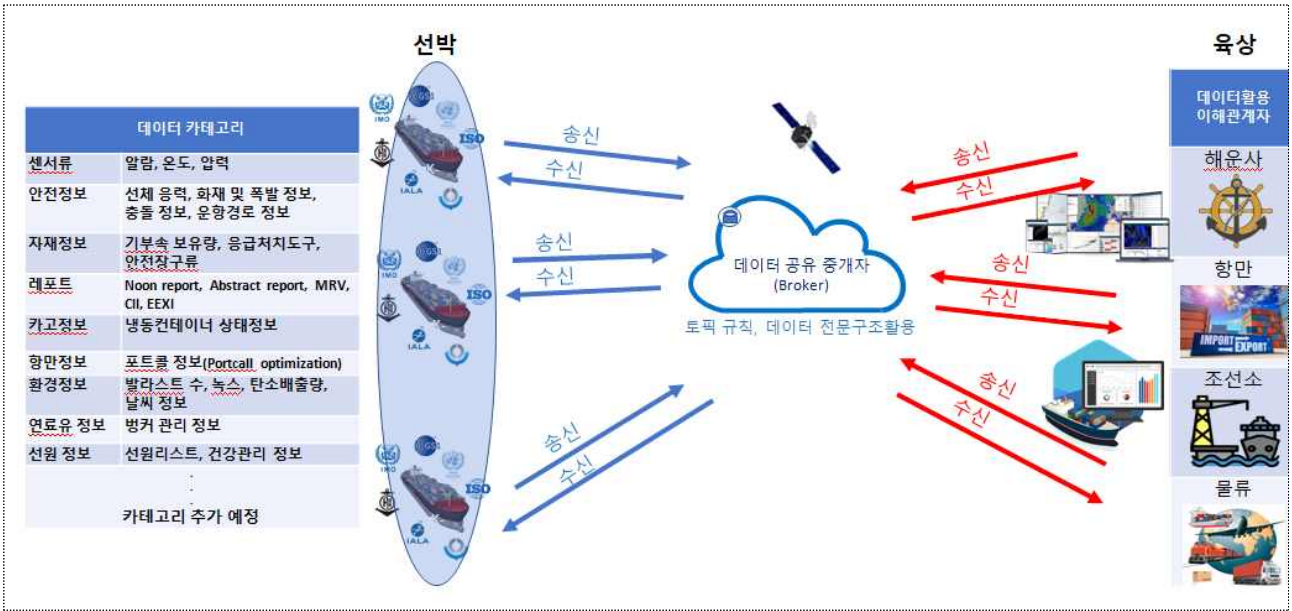
* 자료출저 :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

참고2 스마트선박 데이터 플랫폼 흐름도



* 자료출처 :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 구축 추진단

참고3 데이터 서버 활용 선박-육상 데이터 송·수신 체계 개념도



* 자료출처 :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